

전문가풀 회의결과 보고서

I. 개요

1. 일시 : 2010. 10. 28 . (11:00~12:00)

2. 장소 : 8층 회의실

3. 발표자 :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

4. 참석자

김준동(KIEP, 무역투자정책실장)

현혜정(KIEP, WTO팀장)

김영귀(KIEP, 부연구위원)

김혁황(KIEP, 전문연구원)

강대창(KIEP, 부연구위원)

4. 제 목

- 기업의 해외직접투자(FDI)와 기업경영 관련 분석

II. 주요 논의 사항

1) 발제내용

□ 우리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등 국내 기업의 다국적기업화가 크게

진전

○ 다국적기업화로 인해 해외로의 직접투자 증가가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키고 고용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

○ 반면 생산공정의 해외 이전은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발한다는 주장

□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한 이후 경영활동 변화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

○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보면 국내외 생산간 수직적 분업 등 생산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대체로 보완관계를 지지하는 반면 자본제약 등 금융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의 경우는 대체관계를 지지

○ R&D 투자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Petit and Sanna-Randaccio(1998, 2000)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사후적으로 R&D 투자를 증가시킨다고 분석

○ 국내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또는 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몇몇 기존 연구 존재

- 김영찬, 김정규(1997), 서영경, 이한녕(2002) 등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에 대한 FDI는 정의 수출효과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를, 선진국에 대한 FDI는 부의 수출효과와 무역수지 악화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고 분석

- 이홍식, 강성진(2006)은 FDI가 탈산업화를 초래한다는 결과를

보였으며 신현열, 오진석(2005)은 시장접근형 해외직접투자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반면 생산비용절감형 해외투자는 고용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

- 본 논문은 FDI를 시행한 국내 기업의 기업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FDI 이후 국내투자, R&D투자, 노동 고용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
 - 분석 방법으로서 통상적인 최소자승회귀(Ordinary Least Squares) 모형과 함께 Difference-in-Difference (DID)분석 모형을 활용
- 분석 결과 2003년에 FDI한 국내 제조업체의 연구개발규모 변화가 2003년 직접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의 연구개발규모의 변화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음
 - 고용규모에 있어서도 2003년 FDI를 실시한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간의 변화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
 - 신규투자 규모면에서는 FDI를 실행한 기업의 신규투자 규모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이러한 분석 결과는 김현정(2008)의 결과*와 일부 유사

* 김현정(2004)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13개 업종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보완관계를 보이며 특히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국내투자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보완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밝힘¹⁾

1)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경우 지역적으로 원거리이고 현지 부품조달이 용이한 점 때문이며 개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거리로서 부품, 자본재 등의 현지조달이 어려운 데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.

2) 토론 내용

- 외국인직접투자가 R&D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에 대한 해석은?
 - selection 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.
- FDI가 고용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?
 - 아직 분석해 보지 않았음.